



통권 67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7. 5.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9차 정기총회 갖다



양심수후원회 제9차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4월 26일(토) 오후 4시부터 홍사단 강당에서 회원과 축하손님 등 200여명이 함께 모여 제9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총회는 이기욱 운영위원의 사회로 개회선언, 민중의례, 김승훈 지도위원의 모시는 말씀 그리고 권오현 회장의 내빈 소개와 8차년도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윤성식 감사로부터 감사보고를 다른 의견없이 받아들였고, 다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4명의 고마운 회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특히 이날 감사패 증정후 고 이균영 님(소설가, 동덕여대 교수,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에 대한 감사패 추서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아들 이두원군이 참석해 많은 회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총회는 9차년도를 이끌고 나갈 새일꾼으로 회장단과 운영위원은 총회준비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감사는 진관스님(구속중)과 윤성식, 김규철 선생을 직접 뽑았습니다.

새일꾼 인사에 이어, 지도위원을 추대하였고 탁무권 운영위원이 제안설명한 9차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큰 박수로 채택했으며, 후원회 회칙 일부를 개정 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김호현 회원이 제안한 '북녘동포 돋기' 긴급동의안을 후원회에서 특별 사업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전창일(범민련), 함세환(출소장기수),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님께서 격려말씀과 총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조개 달려온 가극단 '금강' 여러분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진하 회원의 힘찬 낭독으로 총회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총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

- 한백교회 고난받는 양심수와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다 풀려난 출소장기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한결같은 성원을 하셨습니다.
- 최은선 님 후원회가 만들어진 때부터 보이지 않게 한결같은 성원을 하셨습니다.
- 고현희 님 오랫동안 「후원회 소식」 기자로 우리 사회의 인권실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 홍대진 님 민가협 도우미로 특히 민가협 목요집회 때마다 거르지 않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어려운 일을 도맡았습니다.
- 고 이균영 운영위원 교수로, 작가로 학문연구와 후학지도, 글쓰기에 바쁜 중에도 후원회의 크고 작은 일을 다하셨습니다. 후원회에 고인께서 남기신 업적을 기리며 감사패를 추서합니다.

9차 총회에서 새로 뽑힌 일꾼들

지도위원(추대)

김승훈(시흥성당 주임신부)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박용길(통일맞이 철천만 거래모임 이사장, 민가협 공동의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논설위원)

회장단

권오현(회장, 다시 뽑힘, 민가협 공동의장)

김지영(부회장, 새로 뽑힘, 의사,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소속)

이기욱(부회장, 새로 뽑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운영위원

소수영(다시 뽑힘, 전 후원회 부회장 지명)

이정규(다시 뽑힘, 주부)

탁무권(다시 뽑힘, 출판업,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 치른)

이덕우(다시 뽑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경용(새로 뽑힘, 성공회 신부, 봉천동 나눔의 집 대표)

감사

진 관(다시 뽑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구속 재판중)

윤성식(다시 뽑힘, 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김규철(새로 뽑힘, 전 임수경후원사업회 감사)



◀ 9차년도를 이끌어나갈 새일꾼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랫동안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으로 지도해 주셨던 조만조 님, 부회장으로 애써주신 윤정모 님,

운영위원으로 애썼던 정인숙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운영위원으로 일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균영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

희망의 시嗣이 되기를 자처한 가족, 연우네

편집부

돌보기를 종이에 대고 45초만 기다리면 연기가 피어오를 듯 싶게 바짝마른 대기다. 헛별은 두껍기 이를데 없다. 거리의 사람들은 허덕댄다. 맹렬한 불가뭄은 어린 생명한테 앙탈을 부린다. 백일을 갓 지낸, 연우는 그 가뭄이 너무 독해 밭은 기침을 해댔다. 얼굴에 열이 차올랐다. 엄마는 움찔했다. “내일 아빠 만나러 가는데, 가서 함빡 웃어줘야 하는데, 웃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연우 머리맡에는 여남은 개의 우유병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숫자에 맞춰 덜어놓은 분유도 보인다. 기저귀는 연우 키 높이로 개켜져 쌓여있다. 짧은 엄마의 여유만만한 준비자세로는 넘친 감이 있어 고개를 가웃한다. 곧이어 아기 엄마의 그런 빈틈없는 자세는 아기 아빠의 빈자리가 주는 긴장감 임을 알아챈다.

‘노동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하 노진추)’ 대표 성두현 씨는 큰 도둑을 만났다. 그는 갓 태어난 아들이 용알이 하는 것, 눈을 맞추는 것, 움켜쥐려고 손가락에 힘을 주는 것, 침을 흘리는 것, 딸꾹질 하는 것, 하다못해 이불을 얼마나 자주, 세게 걷어 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린 연우와 함께 해야할, 일생에 두 번 오지 않을 시간을 고스란히 도둑 맞았기 때문이다. ‘안에서’ 틈틈이 육아책을 보는 것으로 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낯설지 않도록, 아버지 이름에 모자라지 않도록 그림과 활자로 어린 생명을 유

추하려 애쓰고 있다. 아무리 어리다지만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첫대면을 할 수는 없어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드디어 내일 만나게 된다.

연우 엄마 이성선 씨는 아직 봇기가 빠지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자랐다. 90년에 숙명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93년도부터 인천지역 노동현장으로 들어갔다. 학생시절에도 노동현장과 무관하게 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접 몸으로 부딪힌 현장은 이론과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팽팽한 생동감이 좋았다. 희망스러웠다. 노동운동이 한풀 사그라 들었다고 떠들던 그때도 현장으로 들어선 ‘투사’들을 셋이나 만났다. 그전에는 민정연, 마창 민정연 등에서 활동했다. 노진추 일을 하면서 95년 11월에 성두현 대표를 만나 부부의 인연에 이르렀다. 화사한 신부가 되는 날을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아기 출산마저 홀로 감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성대표의 구속이나 연우의 출산을 물이 스며들 듯 조용하게 감내하는 얼굴이었다.

“익숙한 일이거든요. 성 대표는 전에도 한 번 구속된 일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별다를 게 없죠. 노진추 활동하면서 많이 봐왔었거든요. 성 대표는 92년에도 ‘노동자 해방 투쟁위원회(이하 노해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고생하셨죠. 우리 가족에게는 처음있는 일이긴 한데 주위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니까 크게 낯설지는 않아요.”

성두현 씨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77년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해서 “학생때는 학생운동, 노동자때는 노동운동”으로 이력서를 빼곡하게 채운, 인천지역 노동현장의 큰 베풀목이다. ‘노해투위’ 사건으로 2년6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루고 95년 출감했다. 당시 구금중이었던 안동교도소에서 장기수 이성우 선생을 만났다. 칠순을 넘어 선 이성우 선생은 재일교포로 84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0년을 선고받았다. 안기부에서 40여일 동안 영장없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당한 온갖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장병, 협심증 등 의 질병으로 고통스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 선생과 같은 사동에서 옥고를 치뤘던 성대표는 출소 이후 차가운 감옥에서 병마와 싸우는 이 선생을 잊을 수가 없었다. 바쁜 와중에도 민가협 등 인권단체를 찾아다니며 이 선생의 조기석방을 호소했다. 95년 7월 민가협 목요집회에 나온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채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기수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아파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석방은 다른 어떤 것을 떠나 우리 사회, 당국의 인도성, 인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인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라고 말했던 성대표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이성우 선생은 95년 9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95년 연말에 성 대표 주위의 사람들은 ‘시와 노래의 밤’ 공연표를 지독하게 강매당한 기억을 다들 갖고 있다. 그해 공연 도우미로도 한몫 특특 히 했다.

96년 3월 9일 성두현 씨는 “노동자 민

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합법적인 모임으로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창립 대의원 대회를 열고 그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된다.

노진추의 밀그림부터 그려 세상에
첫발자욱을 내딛으려는 찰나에
성씨는 큰 슬픔에 휩쓸린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아들
때문에 마음 졸이시던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여
의게 된 것이다. 노진추
창립 이를 전 일이었다.

어린 연우는 엄마가
힘든 것을 아는지 순하게
크고 자란다. 분명하게 뭘
가가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에만 울고 보챈다. 이에 비하면
연우 아버지 성 대표는 한참이나 기가 막
힌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96년 10월
9일 경찰청 보안국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성 대표를 비롯하
여 노진추 회원 25명을 구속했다. 노진추
는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원하면 누
구나 다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또
한 4.11 총선 당시 노동자 후보 선거운동
을 벌인다든지, 격주로 노동자 신문을 발
간한 것이라든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왔
다. 그런데 8.15 한총련 사건, 북한 잠수
함 출현 등으로 극단적인 메카시즘이 우리
사회를 짓누를 즈음 노진추는 거세어지는
공안정국 조성 기도속에서 국가보안법에
걸려들고 만다.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 혐의로 구
속기소가 된 것이다.

“아마도 성 대표는, 한마디로 쉬지 않고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자기는



안에서 우리는 바깥에서. 결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죠.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서 싸우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의지하거나 믿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여지껏 배웠으니깐. 결국하는 노동자, 당하는 사람들이 일어서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크고 작은 날날의 움직임들을 모아 나아갈 물줄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노진추의 목적이죠. 그렇게 볼 때 악법 철폐,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구속시킨 거죠. 노진추로는 절대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를 읊아메고 있는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정치적인 맥락에 닿아 있는 거죠.”

함께 구속된 가족 가운데는 이름마저 틀린 사람도 있다. 한 나라의 법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름도 확인 않고 재판을 한다고 한다. 얼마나 궁색한 공소장인지 되레 민망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이런 엉터리 종잇장으로 연우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무엇이 이 나라의 실체인지 묻고 싶은 생각이 든다. 1심에서 2년 6월형을 선고받은 성 대표는 5월말에 항소심 결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뒤틀려 있고 어거지로 짜여져 있고 한없이 어긋나 있기에 더욱 포기할 수 없다. 더 힘차게 틀리다고 조목조목 얘기하고 끝까지 진술을 한다.

다행스럽게 연우가 아빠와 첫대면을 하는 날 단비가 내렸다. 봄가뭄을 끝내는 고마운 비다. 건조한 공기에 맡은 기침을 뱉어내는 연우는 우리 내면을 대신하는지도 모른다. 노동의 삶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사회, 기만과 협잡에 몸을 떨지 않아도 좋

은 나라. 네꿈 내꿈 나누며 돋는 참 좋은 사람세상… 이런 것들에 목말라 맡은 기침을 내뱉는 현실—우리 삶의 주소지다.

혁혁대도록 희망이 가물은 이 땅에서 다른 희망을 살피느라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씨들이 되기를 선택한 가족, 연우네. 그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는 일이다. 가물고 척박한 이 삶의 땅에 시원한 빛줄기를 부르는 우리 가족들의 다부진 마음을 기대한다.

“출산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쓱니다.

성선씨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기가 엄마 배속이 아늑해서 늦게 세상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5시 3분에 고놈이 탄생했다고 하니 아빠 최후 진술이 끝나면 나올려고 시간을 끌었나 봅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환희에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애기, 산모 모두 건강하고 특히 성선씨가 큰 고생을 하지 않았다니 모두 돌아가신 어머님, 장인, 장모님 은덕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옆에 없어 안타깝지만 매일매일 내가 성선씨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성선씨 옆에 아니, 항상 성선씨와 같이 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

황대권 (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속, 현 대전교도소 구금중)

굵은 눈물, 카네이션

“어머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식들이 저마다 손에 카네이션 꽃을 들고 장안동 큰집으로 모여들겠지요.

제주도에서 미선이까지 올라온다면 어머니 가슴에는 마치 훈장처럼 다섯개의 카네이션이 주렁주렁 달리겠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온갖 걱정 다하시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뉘시는 우리 어머니” 노래를 합창한 뒤 가지고 온 선물 꾸러미를 펼쳐 보이겠지요.

어머님은 수줍은 듯 이런 걸 무엇하려 가져왔나며 가볍게 나무라시면서 싱글벙글 웃으시겠지요. 한바탕 이야기꽃이 만발한 뒤에 자식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면서 점심상을 차리려 나가시겠지요.

오늘을 위해 육상에다 가마솥을 걸어놓고 며칠째 고우던 곰국을 떠서 걸찌하니 점심상을 차려 나오시며 형님더러 이것 먹고 제발 살 좀 찌라 하시겠지요.

그 때까지도 문지방을 넘나들며 뛰어다니던 손주 녀석들은 그제서야 밥숟가락 하나씩 쥐어들고 “할머니 고맙게 먹겠습니다!”하며 밥상머리에 달라 붙겠지요.

어머니는 얼른 한숟갈 뜯는 등 마는 등 하시다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다 깍기 시작하겠지요. 밥숟가락을 깨지락거리며 밥을 먹는 승택이를 바라보시고는 “장가가서 애를 놓고도 밥먹는 것은 여전하구나”하시며 깍은 과일을 상위에 올려 놓으시겠지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 바쁘다고들 하나 둘 자리를 뜨면 문밖까지 배웅 나가시면서 조심해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하시겠지요.

그리고, 다시 텁빈 안방에 돌아오시어 섬모상 앞에 다소곳이 앉으시며 목주를 쥐시겠지요. 섬모송을 한 1단 좀 외우시다가 갑자기 목주압을 돌리던 손을 멈추시고는 감옥에 있는 저를 생각하시고 눈물을 글썽이시겠지요.

…….

…….

어머님, 사랑합니다.

여기에 불효자의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사나이 굵은 눈물 속에.

부디, 천주님의 은총속에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아버지날에, 대구에서 둘째 올립.

- 황대권 님은 1953년 태어나 1982년 서울대 농과대 졸업, 82년 8월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 대학원에 유학.

19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대구교도소에 구금중이다 5월초 대전교도소로 이감.

김미정 회원을 만나



편집부

전남 신안군 안좌도
안좌농협 출납계에서 일하는
김미정(28세)씨가 취재 대상에
오른지는 오래전이다.
92년 말부터 회비명단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정작
소식지는 94년에야 보내게 된
탓도 있고 먼데 있는 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 사람이었다.

'안좌도'라고 말할 때도
'완도'로 알아들었다.
까마득하게 먼길을 계산하느라
봄날 다가도록 미적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가 눈앞에 나타났다.
오늘내일 미루고만 있는
이쪽 오지랖을 알만 하다는
듯, 다 이해할 만하다는 듯이.

"총회에 오려고 휴가계를
냈지요. 날씨가 나빠 배가
못뜨면 어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괜찮더군요.
우리는 날씨에 아주 민감해요.
배가 뜨고 못뜨고는 순전히
날씨에 달려 있거든요.
열차는 목포에서 미리 예매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시와
노래의 밤' 불려고 온적이
있어요. 자주 오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죠. 선생님들 뵈니
정말 너무 평범하신 모습들이
세요. 어떻게 그 세월을
사셨나 싶네요. 전에 한 번
목요집회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몰라 혀결음 한적이
있어요. 마석 모란공원에
가려고 나섰다가 낯선
길인데다 날이 저물어 그냥
되돌아 가기도 했구요.
참 안타까웠어요."

몇 년 전까지 신라시대 유물로
떠들썩하던 신안 앞바다의
안좌도는 마늘이 특산품인
섬이다. 마늘 작황에 따라
일년 농사가 결정난다. 마늘
파종철에는 농협 직원들이
밭에 나가고 수확철에는
광주나 대도시로 마늘 팔려
나간다. 어느 농촌처럼 안좌도
역시 젊은이가 드물다. 그가
사는 청마 2리 마을에는
20대가 그와 사촌동생 뿐이다.
학업과 취업으로 모두들
객지에 나가있다. 일손이
부족한 탓에 너도나도 농기계
를 들인다. 문제는 농기계를
쓰라고 부추기기만 할 뿐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
이다. 거의가 50, 60대인 농촌
어른들이 깨알같이 쓰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본 뒤에
용의주도하게 사용하리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글씨를
쓸 수 없는 둥툭한 손들은
농기계 사고로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것이다. 근래에 들어 더
자주 본다. 손가락 없는
손으로 농사일을 어찌할까.
통장의 입출금 용지를 대신
쓰면서 착찹해진다.

재해보험에 농협에 있다고
하나 뒷북 올리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산 모양만 본따
허술하고 다급하게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과
토양에 맞출 연구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몸사려 가며 농사일 하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알맹이 없는
소리인지….

“월말 쯤이면 소식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산행
이야기를 먼저 봐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너무 부러워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전교조 문제로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그때부터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양심수나 후원회
이런 말들 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요. 소식지의 활자로만
보고 듣고 하는 셈이죠.
소식지를 받으면 반드시 직장
동료들과 돌려 봐요. 말을
하면 믿지 않으니까 직접 읽고
생각해 보라고 하죠.”

제도 언론을 통해 들려지는
말을 거부하고 실체를 들여다
보려는 의지가 직장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곤 한다.
노조의 필요성을 느낀 몇몇
동료들의 자발적인 모임도
그이가 주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눈총을 받았다.

마땅한 대화 상대가 없는데다
그나마 의지하던 선생님 마저
전근 가시는 바람에 답답함은
더해 갔다. 고립감이 사무치던
차에 총회 소식을 들었다.
꼭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후원회 식구들과 선생님들을
뵈면 기운을 차릴 듯 싶었다.
그럼에 해서 달려와 살갑게
인사하는 얼굴들과 뒷풀이
홍을 들이키며 소식지에
목소리도 냈다. 그러는 새 타고
갈 열차 시각이 다급해졌다.
지하도 계단을 황급히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덜
삭힌 마음의 갈증이 보였다.
이런 곱의은 마음을 모른체
하고 미적거린 이쪽의
인색함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봄밤 새도록 차에서
흔들거리다가 동틀 무렵에야
남녘 끝에 뒹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과 바다의 안색을
살펴가며 배를 타고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행여 먼길에 지치지는
않았을까. 그토록 부러워하는
후원회 정기 산행이 서울
식구들에에는 얼마나 손쉬운
기회였는지를 반성하며 그의
여름 휴가를 기약했다.
혹 서울 걸음을 하게 되면
산행, 모란공원, 낙성대,
목요집회, 두루두루 다 기억에
묻자고 신신당부했다.

멀지 않은 날에 우리는
개마고원 감자 농사와 안좌도
마늘 농사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비록애 지금은 한시
급한 양식마저 남의 나라를
거쳐가느니, 절차상의 문제니
해서 안타까이 발을 구르고
있지만 말이다. 8조원 어치의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손내밀 줄
모르는, 사람노릇 팽개친
어처구니들에 할 말을 잃는다.
그러나 그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오는 이런 마음을 보라! -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

비단위에서는 꽃이 새롭게 있다.
비단상 손사정관은 '여자를 가
도 좋으나 인간을 버려서는 안된
다'는 말로 서대원들을 재산시키
며 한 단숨 다급한 상황이었다.
여자의 인간은 한 번은 죽기 아
쁜인 것. 다른 생각으로 일어나
죽을 일을 다해 걸었는데도 그
'기억속' 밭처럼들이 바투중일
것이 무슨 것은 고작 꽃바가 헌
았다.

"모두 데 사 순자리를 넘기지
못한 세 도제나마군요. 속이 오랫
동안 써어 있던 땅에 땅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땅을
풀어서야 겨우 아트제단에 서서 봄
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체포될 것은 예상되

48년, 부르고 또 부르는 망향가

편집부



서둘러 떠났는데도 광주에 도착해 보니 벌써 한낮이 지나 있었다. 광주를 향하는 버스안에서 내내 봄볕이 너무 좋아 흥얼대던 노래는 광주에 가까워질수록 느린 곡조로 변하고 있었다.

'봄볕 내리던 날, 뜨거운 바람 부우는 날…… 사랑이여, 내에 사랑이여 음음음……'

늦은 점심을 먹고 찾아간 '빛고을 탕제원'에서는, 움푹 들어간 한 쪽 눈에 안대를 한 김영태 선생님께서 환자를 보느라 분주하셨다.

김영태 선생님은 1931년, '폐양북도' 정주군 옥천면에서 태어나셨다.

일제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일제의 수탈에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넘어가 생활한 적도 있는데, 그 때 선생님은 중국 빨치산 투쟁에 대해 어렵잖이 귀동냥하며 유년기를 보냈다.

해방이 되던 45년 선생님은 당산 인민학교 6학년이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한채 다시 1년을 6학년으로 지내야했다. 해방과 함께 세워진 인민학교에서는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학생들은 그대로 졸업 시킬 수 없다하여 1년씩 더 다니

게 한 것이다.

인민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은 옥천중학교에 입학했다. 해방후 면소재지마다 중학교가 생기게 됨에 따라 선생님은 어렵지 않게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조국 건설'로 팔뚝에 울퉁불퉁 힘이 붙어가고 머리가 굽어져가던 50년, 전쟁의 발발은 선생님의 순탄하던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

"북에서는 궐기형식으로 인민군을 모집했습니다. 그 때 동네 친구들과 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길을 걷는데 B 29기 2대가 쏴아 소리를 내며 바로 머리위로 낮게 내려 오더니 1톤짜리 포탄을 2개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넘어지고, 달아나고 그야말로 혼비백산 했드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 소격을 경험한 겁니다."

그 길로 선생님과 친구들은 인민군대에 지원하게 되었다. 친구들끼리 가면 한 부대로 가는 줄만 알던 순진한 열아홉 청년이었다.

선생님은 진남포 제일 인민학교에 가설된 임시훈련소에서 보름간 훈련을 받고 정식 인민군 자격으로 전선으로 투입된다. 소속된 부대는 인민군 10사단 직속부대

인 운수중대였다. 부대는 낙동간 전선으로 까지 내려 왔는데, 맡은 역할은 포탄을 차에 실는 일었다.

“음력 8월 추석 다음날로 기억 됩니다. 부대원 중 10명을 뽑아, 그 사람들에게는 짐을 내려 놓으라고 명령을 하더군요. 그 때 제가 뽑혔는데,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본대가 먼저 후퇴한 후 뒤에 남아 군수 물자를 소각시킨 후 본대와 합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10명은 번갈아 보초를 서며 불을 놓고 달리고, 또 다시 불을 놓고 달리며 1주일만에 겨우 본대를 따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추풍령을 넘어서며 10사단 인민군들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다. 51년 1월, 하얗게 눈이 쌓인 추풍령에는 ‘제균 무기병’에 걸린 부대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한 겨울에 재귀열이 라니. 열이 오르고 머리가 빠지고, 심지어 귀가 멀어가며 죽어가는 대원들이 생겼다. 선생님도 ‘제균 무기병’에 걸려 부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단양에서의 일이다.

“환자 200여명이 모여 있는데 새벽에 국군의 기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의무부대 책임자인 준위 여성동지가 기억에 또렷합니다. 권총을 빼 들더니 환자들은 모두 피하라며 자신은 그대로 앉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0명 부상병 중 살아 남은 대원은 60명에 불과했다.

지휘관도 지도도 없이 산 속을 헤매던 중 선생님과 대원들은 이 현상부대를 만나게 된다.

남부군에 합류한 선생님이 참가한 첫 ‘전투’는 속리산 입석부락에서였다.

국군 한 대대가 남부군을 토벌하기 위해 입석부락에 주둔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남부군은 기습작전을 벌였다. 당시 선생님은 국군 보초들이 철수하는 것을 뒤쫓아 내려가다 기습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총을 쏜 경험이 없던 선생님은 총을 쏘며 달아나는 국군에게 ‘손들리우, 손들리우’ 하며 종용해도 군인이 계속 총을 쏘며 저항하자,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었다고 한다.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 탓일까, 선생님은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했다.

“포로들을 데려와 하루를 재우며 교양을 시킨 후 그 다음날 다 보내 주었습니다. 부상병은 치료해 다를 군인에게 엎혀보내고 집이 먼 군인에게는 여비까지 줘서 보냈지요. 그런 식으로 매번 포로

를 풀어 주었는데, 한 일화로 한 번은 잡혀온 포로가 이번이 9번째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웃이 낚았으니 미안하지만 좀 바꿔입자고 하면 모두 서슴없이 벗어주고 바꿔입고 떠났습니다.” ‘이현상식’ 포로대우란다.

유격대 생활에 익숙해진 선생님

은 추천을 통해 이현상 호위대 대원이 되었다.

“겨울에 섬진강을 건너던 일이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겨울의 섬진강은 정말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간부회의가 있을 때는 미리 발을 걷고 건너가 주위를 살피고 건너와 간부들이 건너오게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 9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호례를 짊으니 입에서 침만 줄줄 흐르고 힘을 하나도 못쓰게 되더군요.”

비장한 식량을 가지러 보낸 호위대원들은 감감 무소식이었고, 벼랑위에서는 공격이 계속되었다.

이현상 총사령관은 ‘어디를 가도 좋으나 양심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말로 부대원들을 해산시키려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죽기 마련인 것’ 이란 생각으로 일어나 죽을 힘을 다해 걸었는데도, 그 ‘기민하던’ 빨치산들이 하루종일 걸어 넘은 것은 고작 골짜기 하나였다.

구사일생으로 쌀을 구하게 되어 밥을 지었다.

“모두 채 세 숟가락을 넘기지 못한 채 토해내더군요. 속이 오랫동안 비어 있던 텃에 밥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죽을 끊어서야 겨우 아호례만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체포된 것은 54년 2월 함양에서다.

“우리는 엄연한 전쟁포로로
제네바협정과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 1953년
복송되어야 했습니다……
남북화해의 장을 여는 차원에서나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죽기전에
가족과 친지들이 살아있는 고향,
북녘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병대를 습격해 현병복장으로
옷을 갈아 입고, 현병들은 속옷바
람으로 모두 집으로 돌려 보낸
후, 호각과 화이바까지 착용하고
입산하던 길이었다.

‘오랜 산생활 때문인지 총을 잡
고 싶은 예감’을 떨칠 수 없던 차
에, 담뱃내가 나 수색하기 위해
앉으며, 뒤돌아 뒤따라 오던 대원
들에게 손으로 제지를 표시하던
순간이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선생님은
정신을 잃었다. 군인이 쏜 첫방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흐릿하게 내
양옆에 버티고 선 현병 두 명이
눈에 들어 오더군요. 그 때 간호
병이 다가와 ‘하필이면 눈을, 하
필이면….’ 하며 안쓰러워하는 표
정을 짓길래 거울 좀 보자고 했지
요. 그랬더니 ‘봐서 뭐하겠나’며
갖다주지 않더군요.”

반쪽 난 조국을 반쪽 눈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 스물넷이던 잘생
긴 미남 청년.

그 미남 청년은 ‘페니실린을 하
도 맞아 굳어진 엉덩이’로 사형을
선고 받고, 남원 포로수용소에서
대구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년을 사형수로 지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조반을 받아 식사
를 막 하려는데 호명이 있었다.
사형집행은 아침녘이었다. 마지막
떠나는 길이라 생각하며 같은 방
에 있던 동료들과 인사를 하고 나
왔다. 그러나 의외로 형집행을 위
해 불러낸 것이 아니라 20년으로

감형되었으니 다른 방으로 이감
된다는 것이었다.

“재판 때 국선 변호사의 변론이
아마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
다. 그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판
사님,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죄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도
이 나이에 북에 있었다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을 겁니다. 이 사람
은 단지 그가 속한 나라에 충성하
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바위도 소화 시킬 수 있던 나이
에 20년 감옥생활은 너무 길게 느
껴졌다. ‘나흔자 어떻게 20년을
사나’ 하는 고립감으로 들어간 감
옥에는 그러나 무기수들이 수두룩
해 오히려 위안을 받을 수 있었
다. 처음 6년동안 눈에서 계속 고
름이 나와 병사생활을 해야했던
선생님은 71년 대전교도소에서
출감한다. 4.19의 영향으로 감형
된 형을 다 살고 난 후였다.

출감후 선생님은 봄, 여름, 가
을에는 집을 짓는 목수로, 일거리
가 없는 겨울에는 뻥튀기 장사로
열심히 생활한다. 낯선, 아무런
연고 없는 타향에서 선생님은 그
당시에 60만원하는 자기 집도 장
만하고 목공소도 차렸다.

그러나 75년 제정된 사회안전
법은, 76년도에는 열혈청년에서
성실한 마흔 다섯 살의 중년 노동
자로 성숙해진 선생님을 다시 감
옥으로 끌어 갔다.

청주 정보부 지하실, 건장한 다
섯명의 남자들이 선생님을 둘러

았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어디다 숨겼느냐, 무전기를 내놓으라’며 무지막지한 몽둥이 짐질을 시작했다. 8일간의 매 타작과 구둣발로 허벅지 짓이기기…, 짐승에게도 가할 수 없는 고문, 고문.

구두장까지 다 들어내며 뒤졌지만 무전기는 커녕 무전기 안테나 비슷한 철조각도 찾지 못했으면서 형사들은 선생님을 청주 감호소에 가두었다.

모진 고문으로 허리를 펼 수 없던 선생님이 들어간 방은 다행히도 이두균 선생님(현 민중탕제원)이 있던 방이었다. 이 선생님이 임시로 갈아 만든 침을 허리에 꽂아주니 그제서야 선생님은 허리를 펼 수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선생님은 감옥에서 내내 열심히 침술을 익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고야 13년만에 감옥문을 나선 선생님은 청주 생활 보호소에서 생활했다. 남쪽에는 가족도 고향도 집도 없는데다, 이젠 쉰 여덟 중늙은이의 몸이었으니.

그러나 바지런한 선생님은 목수 일로 두달만에 집세를 장만해 보호소 생활에서 벗어난다.

94년 6월, 선생님은 우연한 기회로 고 윤기남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목수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선생님은 빽소니차에 치여 기절했다. 그때 동네 아이가 쓰러져 있는 선생님을 발견하고 와이셔츠 윗주머니에서 한겨레신문 지국 전화번호를 찾아 연

락을 했고,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남로당 순천군당 조직책’을 지낸 고 윤기남 선생님이 달려온 것이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선생님은 윤기남, 김인서 선생님과 함께 현재의 빛고을 탕제원에서 생활하며 침술을 생업으로 삼게 되었다.

94년 10월 아침, 한 차례 손님을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우체부가 두통의 편지를 마당에 떨어 뜨리고 갔다. 다가가 주워보니 한 통은 북에 있는 이인모 선생에게서 온 안부 편지였고, 다른 한 통은 발송인, 수신인이 모두 영문자로 표기된 편지였다.

반가운 마음으로 이인모 선생의 편지를 읽던 중, ‘나 한테 이런 편지가 올 일이 없지. 집 주인에게 온 것인가’ 하고 밀쳐 두었던 영문 표기 편지에 자꾸 마음이 끌려 다시 집어 읽어 보았다.

“KIM YOUNG TAE.” (김영태)

“존경하는 아버님! 아버님의 그 토록 못 잊어하는 아들 통제가 44년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목메어 부르며 이 글을 씁니다. … 우리 부자간의 감격적인 상봉의 날 만을 애탏게 기다리는 이 아들입니다.” ‘눈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았다. 이후 선생님은 3통의 편지를 더 받았고 95년 6월에는 일본에서 아들이 건 전화도 받았다. 처음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생후 3개월된 아들을 두고 남으

로 내려온 지 44년.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님의 상상력은 이들의 성장을 따라 잡을 수 없었고, 어떤 때는 목이나 겨우 가누며 눈이 마주치면 생긋거리던 그 때의 모습으로 겨우 키워온 상상력이 주저 앉아 난감하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에게는 2남 1녀의 자식이 있다.

김영태 선생님은 포로다. 정식 인민군의 자격으로 남으로 내려왔고, 본대를 떠나 남부군으로 유격투쟁을 벌이다 체포된 포로다.

1995년 4월 18일 기독교 회관 전 인민군 출신인 김영태, 김인서, 함세환 선생은 “우리는 엄연한 전쟁포로로 제네바협정과 정전 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 1953년 북송되어야 했습니다…… 남북화해의 장을 여는 차원에서나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죽기전에 가족과 친지들이 살아있는 고향, 북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며 정부와 사회단체, 종교, 언론계에 여생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송환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그리고 이 호소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목숨 다하기 전에 아들 얼굴이라도 만져 보는 것’이 소원인 선생님의 꿈은 언제쯤에야 나래를 펼 수 있을까. ☩

작은 행복

김은혜 (회원, 24세)

사월 이십일. 셋째주 일요일. 여느 때와 달리
아침 일찍 눈꺼풀이 떠진다. 산에 가서 먹을 맛있는
점심을 만드느라 일요일 아침부터 부산을 떤다.
벌써부터 설렌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달에 한 번, 거의 같은 산. 북한산,
하지만 늘 새롭고 긴장이 되는 건
산을 오르면서 만나보는 회원들이다.
부시시한 모습으로 약속장소로 달려가는
내 모습과는 달리 족히 십분 정도는 일찍 나오셔서
우리를 반겨주는 선생님들의 건강한 모습. 한달동안
힘들었던 생활이었음에도 생기가 넘쳐나는
선배님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나는 또다시 행복에 잠겨보곤 한답니다.
누군가 그랬죠.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아마도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 행복을 난 평소에 늘 잊고 살다가도 이 날만큼은
일터에서 잊어버렸던 행복까지도 모두 되찾곤 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고,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신이 난답니다.
마치 꼬마 아이처럼요…
수유리 그린파크 앞에 모여서 인원을 파악한 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산에 오른다.
지난 달 산행 때만 해도 풍풍 열어붙었던 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새집을 떨며 푸른 잎을 자랑하고,
계곡의 물은 얼음이 다 녹아 잘잘 흐르더군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정신없이 떠들며 산에 오르는 동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더라고요. 한참 후에야 우리의
목적지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그곳에 우리는 등그렇게 자리를 잡은 후
각자가 정성껏 준비해온 점심을 꺼내놓고 고픈 배들을
열심히 채웠고 입가심으로 막걸리도 한잔씩 했죠.
그리고나서 우리는 자신의 소개시간을 맞이한다. 짤막
하게 자신들의 소개를 끝낸 후 4.19탑에 들렀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환하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신 먼저가신 선생님,
선배님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내려왔다.
‘통일의 집’을 방문해서
문의환 목사님의 유품들을 보며,
박용길 장로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은 후
통일의 집을 나섰다. 우리들의 멋진 뒷풀이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웃고 즐기는 동안 아쉬운 산행을
접어야 할 시간이 왔다. 끊임없이 많은 회원들이
산행에 참석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 더불어사는,
함께 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5월산행

- 언제: 1997년 5월 18일(일) 오전 10시
- 어디로: 관악산
- 모이는 곳: 낙성대역(2호선)가 매표소 앞
- 준비할 것: 맛있는 도시락, 물, 회비 3,000원(웃돈)

저는 4월 15일,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한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 하였다고 하여 구속된 서울대 앞 '그날이 오면' 서점 대표 유정희씨의 남편 김동운입니다.

경찰이 제 아내와 성대 앞 '풀무질' 서점, 고려대 앞 '장백서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이유는『녹슬은 해방구』,『국가와 혁명』등의 책을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 현재 시내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적인 출판물입니다. 더구나 이 책들은 한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베스트셀러로 널리 팔리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이적표현물로 간주해서 서점주인을 구속까지 한 것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국제적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과학서점 주인들은 생계를 위해 출판인들에게 책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영인입니다.

생업마저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한 것은 자신과 다른 생각과 표현을 갖지 못하도록 한 나라의 모든 책들을 불태워 버렸던 중국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다를바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출판물을 팔았다는 것이 고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고문 수사기관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갈만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입니까. 더구나 남영동 수사관들은 은종복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다시금 우리에게 고문 등 인권유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제 아내와 대학 앞 사회과학서점 대표를 구속하고 책을 압수해간 것은 군사정권에서 나 있었던 사회과학 서점들에 대한 탄압이 재연된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실형선고로 5, 6공 군사정권 당시 두 대통령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단죄된 지금, 또 다시 인문사회과학서점을 압수수색하고 서점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제 아내와 서점 주인들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혐의가 적용된 『세계 철학사』,『레닌 저작선』,『변증법적 유물론』등의 책들을 읽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에 대해 이 책들이 '국가존립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영삼 정부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사회과학서점 대표 3명을 즉각 석방하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하라!

이글은 지난 4월 24일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서울대 앞 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 대표 유정희 씨의 남편 김동운 씨가 연설한 내용입니다.

인·권·소·식

경찰의 실탄 발사로 박상태 군 (천안 단국대) 허벅지 관통상입니다.

지난 3월 24일 밤 12시경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중단과 살인진압무기 회수를 요구하며 충남총련 소속 학생 20여명과 함께 충남 천안 소재 신안파출소에 페인트병 등을 투척하였던 박상태(20, 단국대 경제무역학2)군이 뒤쫓아온 임양수(신안파출소 소속) 순경이 쏜 실탄 1발에 맞고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다.

박군의 부상사실은 경찰의 기록접견 등 박군에 대한 모든 면회를 차단함으로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4. 16. 박군이 학교선배에게 보낸 편지에서 “총을 맞아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구멍이 뚫려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식염수를 부으면 구멍을 통해 식염수가 흘러나온다”고 주장하여 비로소 공개되었다.

경찰은 박군을 천안경찰서로 연행된 뒤 10일 동안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면회를 금지시켜 총기사용수칙을 어긴 채 실탄을 발사, 박군이 부상당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 현재 천안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박군은 한국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4. 23.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은 박상태군 충상사건과 관련 김형진 경찰청장과 이기목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위기

4. 28. 오후 5시경 남윤국(19, 서울대 독어독문학1) 군이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과 왼쪽 광대뼈가 각각 파열, 핵물되고 왼쪽 앞니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서울대총학생회가 지난 4.

2. 이미 범청학련이 당일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 ‘범청학련 투쟁선포식’을 개최거부키로 공식 결정하였고 당일 오후 2시경에는 한총련 중앙상임위가 연세대로 집회장소 변경을 공식결정하였음에도 27일 밤 10시부터 전경 25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 서울대 정문과 후문 등 서울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채 학생증과 가방은 물론 서울대에 출입하는 차의 뒷트렁크까지 열어보는 등 불법 검문검색을 벌였다. 이에 서울대생 700여명은 오후 4시 30분경 범청학련 집회가 연세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서울대 정문을 봉쇄하고 있던 경찰에 항의하고자 맨몸으로 교문 앞을 나서다가 곤봉과 방패 등으로 무장한 전경과 사복체포조 500여명이 돌을 던지며 학생들을 검거하려 하자 산발적인 투석전을 벌였다. 이 때 정문 앞 2-30미터, 정문 좌측 소나무 근처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남윤국 군이 안면을 맞고 쓰러졌다. 남군은 4. 28. 밤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후송되어 안과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 무장간첩 관련 의혹제기한 윤석진씨 무죄판결

4. 24. 지난해 10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 무장간첩’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진(28세, 서강대 사학졸)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부장판사)는 “윤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세계철학사』『레닌 저작선』『변증법적 유물론』등의 책들이 피고인의 전공(사학)과 관련된 것이며, 표현물 자체가 국가존립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 31. 서울경찰청 보안분실에 의해

“컴퓨터통신 게시판에 강릉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 일 가능성 따위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이 쓴 직격최루탄 맞고 뇌출혈 일으켜

4월 28일 오후 4시30분경 박민서(21. 전남대 경영학 2)군이 경찰이 쓴 직격최루탄에 왼쪽 눈위 이마를 맞

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일으키는 중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다.

박군은 이날 오후 3시경 조선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열린 범청학련 투쟁선포식에 참가하였다가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선대 교정에 들어온 경찰 7000여명에 맞서 남총련 소속 대학생 1천여명과 함께 투석전을 벌이던 중 이같은 중상을 입은 것이다.

현재 뇌수술을 받은 박군은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4월 구속된 양심수

집회 및 시위 관련 구속자 . . .

노종현(목포전문대) 조인호(목포대, 4. 2.) 이진수(나주 동신대, 4. 4.) 정욱재 이창수(명지대 - 학내시위 관련, 4. 7) 김현우(국민대) 박광수(경성대 동아리연합회장, 4. 8.) 오영욱(경북대, 4. 9.) 노일식(서강대 총학생회장, 4. 11.) 전상규(조선대) 박현준(경기대, 4. 11.) 이정담(광주대 96, 4. 12.) 김정수(동국대, 4. 14.) 김광훈(광주대 96, 4. 16.) 정재윤(서원대 96, 4. 18.) 황인천(호남대 91, 4. 18.) 하민수(한양대 97, 4. 19.) 유정호 안민석(서울대 96, 4. 24.) 배동렬(서울대 96, 4. 28.) 조민(성균관대 95, 4. 30.)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

전학련 사건- 4. 4.
이경석 강병권 이요훈(이상 한양대) 김진봉(동국대) 박성관(승실대) 오병기 장원주(이상 성균관대) 진의성(경희대)
상지대 21세기 프로메테우스 사건 - 4. 7.
전수진(96년 경상대 회장) 이명주(94년 상지대 전학련 의장)
전훈(96년 인문대 회장)
노진추 사건(부산연락소) - 4. 8.
박지순(마창지부 회원) 류슈진(부산 청학위 의장) 안태정(부산교대 96학번, 청학위) 금인숙 박선미
사민청 사건 - 4. 9.
김종성(비상대책위 위원장) 염오순(사민청 선전홍보부장) 한수정(정치학교 간사) 이경은(총무부장) 정희선(회원) 차승

엽(청울림 산악회장)

사회과학 서점 대표 구속 - 4. 15.

은종복(성균관대앞 풀무질) 유정희(서울대 그날이 오면) 김용운(고려대 장백서점)

노동정치 연대- 4. 15.

김혜련(노동정치연대 전 대표) 이용근(노정연 전 집행위원장)

김종박(안양지부) 윤문호(전 북구지부장)

광주대 민족해방군 사건 - 4. 18.

최수동(광주대 총학생회장) 서주영(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이두용(산업공학 95)

서울대 학생연대 - 4. 24.

김상근(서울대 총학 환경위원장) 윤성환(96 서울대 학연 의장) 안제완(대학생 신문사 기자) 조정래(독문 93) 오준호(현 서울대 학연 의장) 정승욱(프로메테우스 회원) 김현식(프로메테우스 회장) 김성현(의예 94) 이승(수학 94) 고영준(토목 95) 조영현(방위산업체 근무)

최지훈(경성대 총학생회장, 부경총련 의장, 4. 13.) 이소희(덕성여대 총학 간부, 4. 15.) 정영훈(한양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변인, 4. 15.) 김봉준(96 부경총련 의장, 동아대 총학생회장, 4. 21.) 현재순(광운대 부총학생회장, 평양시 학생위원회 대자보화 사건, 4. 23.) 한정의(호남대 사회대 회장, 민족해방군 사건, 4. 28.) 김성규(93년 경인총련 의장, 경희대 88, 4. 30.) 유혜정(숙명여대 총학생회장, 평양시 학생위원회 대자보 사건, 4. 30.)

보랏빛 물든 카네이션

이도현(26세, 회원)

이틀 밤낮 내린 비로 대지는 촉촉이 젖어 있다.
하늘은 못다 뿐인 미련이 남아 금방이라도 한차례 더 쏟아 부을 듯이 잔뜩 찌푸려 있다.
3호선 전철을 타고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는 탑골공원으로 향하는 마음이 웬지 착잡하다.

184회로 접어드는 목요집회. 나는 간혹 목요일, 탑골공원 앞을 오곤했다. 그때마다 늘 맑게 개인 하늘같은 마음으로 참여했었다. 하지만 오늘 이 발길은 칙칙한 하늘만큼이나 무겁기만 하다.

종로3가 탑골공원에 도착하니 목요집회를 막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공원 앞에는 양심수들의 사진이 놓이고 프랑카드가 펼쳐진다. 흰머리가 무성하고 주름진 얼굴의 어머니들은 보랏빛 머리수건을 두르며 서로 감옥에 있는 자식들 안부를 물어보신다……

어느 때와 같은 목요집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요일이면 늘 탑골공원 앞에서 국보법철폐, 양심수전원 석방을 외치고 계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탑골공원 지킴이 민주 할아버지들.

우중충한 날씨 탓인지 어머니들의 모습이 많이 뵈지 않는다.

오늘은 5월 8일.

어머니들 가슴에 붉게 핀 카네이션이 다른 어버이들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과 달리 보인다. 얼굴 가득 퍽인 주름만큼이나 고난의 시간이 가득 담겨 있는 까닭일까. 나는 학교친구 종성이, 광일이를 생각한다. 그리고 녀석들의 어머니를 생각한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들, 지금 그들은 굵은 눈물로 피어올린 카네이션을 어머니들께 달아 드릴려는 것인지….

자식에게 억울하게 덫씌워진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무죄선고가 나기까지 노정을 눈물로 발표하는 윤석진씨 어머니.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실명위기에 처한 동기의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여학생의 모습. 지금도 국보법이라는 이름아래 짓밟히는 인권의 현장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한 어머니께서 감옥에서 온 아들의 편지를 낭독하신다. 양심수들이 옥문을 나서 어머니들에게 큰절 올리고 손수 꽃을 달아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사회자의 말로 집회는 끝이난다. 그. 순. 간.

건너편 시사영어사 글목에서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색색의 종이를 오려붙인, 꽃만큼 이쁜 플랭카드를 들고 어머니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어머니'를 부르는 사람들. 가슴속 진한 무엇이 흐르고 살갗이 오돌토돌해진다. 사람들이 달려 탑골공원 앞에 이른다. 우리 모두 이 무엇인지, 놀랄뿐 아무



런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시와 노래의 범'을 연출했던 김정환씨가 마이크를 잡고 어머니들을 위해 "깜짝 감동의 효도잔치"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전대협동우회, 서울지역 문예일꾼 동우회, 청년정보문화센타, 가극단 금강, 그리고 늘 이쁘고 사랑스런 희망 등의 단체가 보랏빛 수건을 두른 어머니들을 위한 작은 정성이 담긴 행사를 준비했단다. 가수 김영남, 음악인 최정배씨 부부도 보이고 전대협 동우회 오영식씨도 보이고 시인 신동호 씨도 보인다. 그리고 가극단 금강도 보인다. 고운얼굴, 거친 손을 모으며 반가워하는 어머니들의 얼굴엔 헛살이 빛나고, 어느새 눈자위가 젖어든다. 고난의 세월, 분노의 세월을 삭이고 자식들의 석방을 위해, 아니 우리 사회의 더 나은 인권실현을 위해 거친 길을 걸어오신 어머니들의 눈물과 한숨. 다른 자식들에게서 꽃을 받았더라도 감옥에 있는 그 자식 생각에 목이 메고 가슴이 허전하셨을 어머니들… 오늘만이라도 그 한숨을 잣아들게 해 드릴 수 있을까,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자식이 되어 드릴 수 있을것인가. 사람들은 어머니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김영남, 가극단 금강은 어머니들에게 노래를 바치고, 또 신동호씨는 시

를 낭독한다. 또 희망은 어머니들께 달아드릴 이쁜 꽃과 편지를 준비해왔다. 순간순간이 감동적이고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진다, 오늘 탑골공원을 향하며 또 목요집회 내내 아려왔던 이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어머니들은 외롭지 않았다. 그 외침이 공허하지도 않았다. 감동의 **효도잔치**를 마련해준 분들이 새삼 고맙고, 어쩌면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한 것같아 슬며시 부끄러워진다. 어머니들의 지친 어깨, 주름진 이마를 우리가 펴드려야 한다.

김영남씨가 부른 '벗이여 해방이 온다. 벗이여 새날이 온다'는 노랫말은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삶. 사랑. 투쟁의 의미를 다시 되뇌이게 한다.

그 날은 오리라.

해맑은 어머니 웃음의 그 날.

어머니들의 고난에 찬 행군이 멈출 수 있는 그 날. 감옥안의 모든 양심수들이 옥문을 활짝 열고 어머니 품으로 안겨오는 날.

어머니들이 항상 서 있는 탑골공원의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날이 오면, 어머니들의 가슴에 편 카네이션도 달리 보이진 않을 거다.

민기협 '양심수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에 함께 할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해마다 5월, 민기협 어머니들이 '양심수 석방 기금 마련'을 위해 서울대 대동제동안 서울대에서 '장터'를 하신지가 올해로 11년째가 됩니다.

10여년 동안 양심수 석방을 위해 갖가지 질병과 온통 쑤셔대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양심수 석방을 위해 떡볶이를 만들고, 파전을 부치고, 순대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민기협 어머니들의 지친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릴 후원회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퇴근 후에 혹은 낮시간에 짬을 내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할 도우미를 기다립니다.

●기간: 97년 5월 20(화) - 23(금)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연락처: 사무실 (T.763-2606)

이런 일이 있었어요

- 4/1 - '민주가족의 날' : 월례강좌 "날치기 안기부법 무엇이 문제인가?"(장주영 변호사 강의)
- "제주 4·3항쟁 49주년 희생자 추모 및 5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 결성식"이 기독교 연합 회관에서 열리다.
- 4/2 - 민가협 회원들, 법무부 검찰국 방문하여 양심수 석방 촉구.
- 26년 옥고를 치룬 후 완주군에 머물고 계셨던 진태윤 선생님 운명.
- 인천지법 3형사부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을 응징 한 박기서씨에게 5년형을 선고.
- 4/3 - 민가협 177회 목요집회, 6월항쟁 10주년 기념 연설(유가협 박정기 회장), 감옥에서 온 박영희 씨 편지 낭독(안옥희 님), 평양시 학생위원회가 서총련에 보내온 편지를 대자보화 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덕성여대 자연대 학생회장 사례(이은주 학생),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대한 민가협 입장 발표(임기란 상임의장).
- 전남경찰청, 한총련 임시의장 강위원(전남대 총학생회장) 학생과 남총련 임시의장 정의찬(조선대총학생회장) 학생에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발부받다. 경찰은 서총련 임시의장 장정섭(단국대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간부 14명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영장 발부받다.
- 유엔 인권위원회로 "제네바"에서 27대 11로 사형 제도 폐지 결의안 채택.
- 4/4 - 고 진태윤 선생님 영결예배(전주 영동병원 영안실).
- 진판스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공판(서울지법 311호 법정).
- 4/6 - 학원자주화 투쟁과 관련 단식농성하다 숨진 고 권희정 학생 1주기 추모제.
- 4/8 -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이수병 열사 22주기 추모제(경희대 수원 배움터).
- 양심수후원회 제9차 총회 준비위원회 세번째 모임이 사무실에서 열려 모범회원 선정 등의 안건 심의.
- 4/9 - 고 박선영, 남태현 열사 합동 추모제(서울교육대학).
- 4/10 - 민가협 178회 목요집회, 현 시국과 관련한 연설(전국연합 황인성), 안기부의 고문사례(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방양균 님), 고 권양섭 님 영전에 조의를 표하는 감옥에서 온 편지 낭독(이상봉 어머니).
- 4/14 - 양심수후원회 제8차년도 97년 1, 2, 3월 사업 및 회계감사 받다.
- 4/17 - 민가협 179회 목요집회, 현 시국과 관련한 연설(서경순 님), 전노 사면 반대연설(이천재 님), 일본 유정식(안동교도소 구금중) 씨 후원그룹과 일본의 '군국주의 반대와 인권운동 시민연대' 회원들 소개와 인사.
- 민가협, '전노 사면논의 즉각 중단하고 5·6공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실시하라' 성명서 발표
- 민가협, 민주가족의 날 모임에서 '북녘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 내란죄를 인정, 무기 등 형확정.
- 「후원회 소식」66호 발송.
- 4/18 -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주최, '5·6공 잔재 청산과 사면반대' 기자회견(기독교 회관).
- 전노 사면 기도를 규탄하는 집회가 민가협, 전국연합 회원들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다(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4월혁명 37주년 기념식 및 4월 혁명상 시상식(민주노총 수상)이 홍사단 강당에서 열리다.
- 4/19 -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 주최, 4.19 영령합동참배가 수유리 4.19국립묘지에서 열리다.
- 전국연합, 민주노총 주최로 '제37주년 4.19혁명 정신계승 결의대회'와 '국정 문란, 비리주범 김현철 구속 촉구' 등 집회를 갖다.
- 4/20 - 양심수후원회 4월 산행, 우이동을 떠나 도선사-용암문-동장대-대동문-진달래능선-4.19국립묘지 참배, 33명이 함께함. '통일의집'에 들러 박용길 장로님을 찾아뵙고 문익환 목사님 영전에 명복을 빈다.
- 4/22 - 민가협 운영위원회, 「민주가족」복간, 전노 사면, 북녘동포돕기 운동 등 논의.

- 사회과학서점(그날이오면, 풀무질, 장백)대표 구속에 항의하는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등 3개대 총학생회 주최로 성균관대에서 열리다.
 - 4/24 - 민가협 180회 목요집회. 사회과학 서점 대표 구속 사례발표('그날이 오면' 대표 남편 김동운 님),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허벅지 부상을 입고 구속된 단국대(천안) 박상태 학생 사례(단국대 대책위 장상희 학생) 발표.
 - 『말』5월호를 5곳의 교도소로 발송
 - 4/25 - 고 강경대 열사 6주기 추모제(명지대) 열리다.
 - 전국연합 주최, "한보비리 진상규명 촉구" 집회
- (신한국당사 앞)에서 열림.
- 4/26 - 양심수후원회 제9차 정기총회(홍사단 강당)
- 4/27 - 고 김세진, 이재호 열사 제11주기 추모제(서울 대) 열리다.
- 4/29 - 광주 빛고을 탕제원 방문.
- 4/30 - 장기구금양심수 85명에게 영치금을 보냄.
- 낙성대 만남의 집과 연고가 없는 출소 선생님 9분에게 생활지원금을 드림.
 - 미국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김태룡, 서경원 님 자녀에게 전해 드림.

회원 소식

- 낙성대 만남의 집에 진돗개 한 마리 출현! 부천의 임경우 회원이 '족보'를 지난 그야말로 순수혈통 진돗개 한 마리를 가져다 주셨답니다. 아침저녁마다 재롱을 피워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나요? 이름은요, '백구' 래요. 또한 동대문교회에서 예쁜 얼룩강아지를 갖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명주 회원이 둘째 아이를 순산했다고 합니다(오메~ 또?). 엄마를 닮은 아들레미, 맑고 밝게 자라나길 바랄께요!
- 오승규(한의사) 회원이 전북 정읍(터미널 앞)에서 한의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으로 가게 됐지만 더욱 서로를 생각하는 맘, 변치 않길 바랍니다. 건투를 뵙습니다.
- 후원회원으로서 그동안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성균관대 앞 풀무질 서점의 은종복 회원이 지난 4월 17일에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서울구치소 9번). 은종복 회원과 가족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음시룡감시룡 제21차 문화기행이 지난 4월 12일과 13일에 걸쳐 '우리 불상의 변천사'를 주제로하여 논산, 공주, 김제, 익산일대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돌아왔답니다. 43명이 함께 한 뜻있는 기행이 되었다구요.
- 4월 13일, '넝마 공동체' 와 '자원재활용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윤팔병 님께서 현종이 등 눈물과 땀으

로 2년간 모은 2,000만원을 넝마공동체의 전세금을 뒤로 하고 북녘돕기 성금으로 내놓으셨답니다.

- 4월 19일, '통일의 집'(문의환목사 기념관)이 '건설노동 공동체 (주)우리건설' 여러분의 정성으로 새단장을 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민가협 등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에서 박용길 장로님은 '우리건설'에 감사패를 드렸고 '옥수수죽'을 먹으며 북녘동포돕기 다짐을 했답니다.
- 신현칠 선생님은 72년, 82세로 돌아가신 어머니(한산 이씨)의 회고록 「그리운 모」를 펴내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을 모시고 5월 17일 오후 1시 인사동 영빈가든(731-3863)에서 출판기념 모임을 연답니다. 선생님이 구금되어 있던 58-60년까지 아드님의 고통에 대한 애절한 모정을 담은 내용이어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 권주환 선생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낙성대 만남의 집 를 한켠을 일궈 손수 상치, 고추 등 여름 푸성귀묘를 사와 알뜰히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한재수(안산시 이동) 이동학(안산시 일동) 김지영(안산시 본오동) 김신중(관악구 봉천8동) 김성희(서초구 방배2동) 김의일(강남구 논현동) 이동읍(군포시 산포시) 이정아(전북 완주군) 이연숙(관악구 신림본동) 유현실(고양시 화정동)

북녘동포 돋기 성금을 기다립니다

“남쪽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가 하루 1인당 400그램…

100그램도 먹지 못하는 북녘의 동포들… 정말 우리도 모아야지요”

“콩나물 천원이면 북녘의 어린이 31명이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분간 콩나물 안먹고 보탤 생각이에요”

지난 총회에서 회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원 여러분, 갈라진 땅 저 북녘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우리 양심수후원회는 96년 7월부터 9월까지 1차 모금운동을 벌여 총 10,020,000원(김현환, 소재국, 채일병, 이면형, 김영현, 전정환, 정순택, 조영건, 주명순, 권오현, 김혜순, 박정숙, 김선분, 황선생님, 이득행, 김경숙, 카톨릭대, 김명호, 신향현, 안병길, 김규철, 김창희, 들빛회, 정인숙, 김호현, 최진만, 이종환, 조창손, 신유호, 임은영, 모지희, 여혜정, 백승호, 오순균, 박근직, 노혁, 양심수를 염려하는 선생님, 윤정모, 소수영 님등)을 종교단체를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 26. 9차총회에서는 김호현 회원의 긴급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5, 6월동안 한시적으로 2차 모금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마음을 기다립니다.

북녘동포돕기 계좌번호 : 제일은행 159-10-001411 권오현양심수후원회

2차 북녘 동포돕기에 함께 해 주신 분들

- 5월 7일 현재

고유형 3,000 고현희 김재홍 200,000 권오현 200,000 권혁문 20,000 김광열 30,000 김규철 100,000

김금수 100,000 김길자 20,000 김달수 30,000 김동찬 30,000 김미정 50,000 김순자 30,000 김승훈 200,000

김영수 10,000 김영주 50,000 김용환 송록희 김한결 260,320 김지영 1,000,000 김혜순 10,000

김호현 서미라 김서현 100,000 뒷풀이 후 71,100 무명 50,000 박미영 10,000 박용길 100,000 박중기 100,000

박철민 3,000 서미영 10,000 서은숙 10,000 소수영 200,000 송경용 1,000,000 신향현 50,000 신현의 20,000

안양희 5,000 알래스카 NAM.E 40달러 여혜정 30,000 윤희보 9,000 이구영 50,000 이기욱 1,000,000

이두원 30,000 이윤경 10,000 이정규 100,000 이정수 100,000 이지은 100,000 이창복 10,000 이현숙 40,000

임병호 50,000 전경희 10,000 전무배 30,000 조영건 10,000 주명순 20,000 최진만 오정화 50,000

출소 선생님들 1,000,000 탁무권 2,000,000 함세환 20,000 홍근수 100,000 황영태 100,000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요.
바쁜 일상에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돌아볼 새도 없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30여년 동안을
꼬박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0.75평 독방에서 더위를 피할 틈도 없이 창살 너머로
가끔 불어오는 더운 바람을 벗삼아 지내야 하는 사람들.
30년이 넘도록 면회한번 하지 못한채
자잘한 세상이야기 한 번 제대로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컴퓨터 키보드 하나로
재빠르게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명의 시대에
볼펜 한자루로 그리움을 달랠야 하는 야만의 조건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음 아닐까요.
철은 단단하고 강하나 작은 불씨들이 모이고 모여 끝내는 철을 녹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철문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양심수 가족들의 눈물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 ~ 30년의 짓을 감옥에 묻어두고 옥밖으로 나온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